

월 출생아 2만 명 붐괴



▲ 비어 있는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의 출생아 수는 1만9,000명 수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3만 명 수준으로 동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해당 기간의 인구는 1만 명 넘게 자연 감소했다.

지난 2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날 '2022년 11월 인구동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3%(847명) 감소한 1만8,98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3만10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1,741명) 증가했다. 11월 기준으로는 통계가 작성된 198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加分은 -1만1,125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서면서 외부 유입 등을 제외하면 11월에만 한국 인구가 1만 명 넘게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1만7,458건으로 전년보다 2.2%(370건) 늘었다. 같은 기간 이혼 건수는 1년 전보다 3.1%(272건) 줄어든 8,498건을 기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에 결혼이 많이 연기되면서 지난해 혼인 건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8월부터 4개월째 증가했다"며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진 아니지만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고물가에 "설 선물 되팔아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 오후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는 뜰지 않은 명절 선물 세트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직거래를 희망하는 판매자는 시중에서 3만원 안팎에 팔리는 선물세트를 2만3,000원에 내놨다. 구매 희망자가 바로 나타나면서 거래가 성사됐다.

지난 2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고물가에 경기 침체 우려까지 겹치면서 올해 설에는 명절 선물을 중고 사이트에서 되팔아 생활비에 보태려는 '명절테크' 현상이 뚜렷해졌다. 되팔기 쉬운 가공식품은 중고 시세를 가능하는 '햄스피' (스팸지수), '참스피' (참치지수) 같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명절 선물의 대표 주자 격인 '스팸' '참치' 등을 '코스피'와 합친 신조어



▲ 당근마켓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미개봉 선물세트들 사진-당근마켓 사이트 캡처

로 각 상품의 100g당 가격을 뜻한다. 명절 선물세트가 쏟아지는 시기에 스팸, 참치 가격의 등락 폭이 큰 만큼 시세를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쓴다. 평소 햄스피는 1,500~1,600원 선이지만 명절엔 일시적으로 공급이 과다해져 20~30% 떨어진다. 24일 햄스피는 명절 끝물 매물이 늘면서 1,280원 선으로 급락했다.

올해 설 연휴 기간의 긴축 모드는 중고 거래 품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직전 사흘간(18~20일) 인기 검색어 순위 5위에 스팸이 올랐다. 지난해 명절만 해도 스팸은 1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 한 유통 전문가는 "고물가로 설 선물을 대하는 관점도 실용주의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20일 동안 무역적자, 작년 연간 적자의 1/5

올들어 첫 20일간 한국의 무역적자가 102억 달러에 달하는 등 무역수지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474억6,700만 달러)의 5분의1에 해당한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출이 둔화한 반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수입액이 급증한 탓이다.

지난 24일 '디지털타임스'가 관세청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올 1월 1~20일 수출(통관 기준)은 336억2,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9억3,300만 달러) 감소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8.8%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반면 수입은 9.3%(37억4,300만 달러) 증가한 438억8,500만 달러였다. 무역수지는 102억6,3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 부산 김만 부두에서 통관을 기다리는 수입 컨테이너들. 사진-연합뉴스

20일 만에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의 21.6%에 달하는 적자를 낸 것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1월 전체 기준으로 역대 최대 무역적자가 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종전 최대 적자는 지난해 8월의 94억3,500만 달러였다. 1월에 무역적자를 기록하면 11개월 연속 무역적자 행진이 이어지는 것이다.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최장기간 무역적자다.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한국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 부진 때문이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34.1% 감소했다. 2009년 3월(-36.2%) 이후 최대폭 감소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 가스 석탄 수입이 급증한 것도 기록적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꼽혔다.

SC FOOT AND ANKLE CENTER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 레이저 고풍이 발톱 치료 Special ★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1pm-5pm 토 9am-2pm
Torrance 월~금 9am-12pm/ 1pm-5pm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